

수시 전형 입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대학생활만족도 잠재집단 간의 전이관계 분석: 입학사정관제 확대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윤예린¹⁾ · 유원선²⁾ · 장유정³⁾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전후로 수시 전형 입학생들의 고등학교 시기 진로개발역량 잠재 집단과 대학생활만족도 잠재집단을 비교하고, 더 나아가 잠재집단 간의 전이관계를 비교함으로써 입학사정관제 정책의 효과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0년간의 격차를 두고 일반계고 졸업 수시 전형 입학생을 조사한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LPA)과 전이확률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2018학년도 수시 입학생의 경우 2008학년도와 달리 고등학교 시기 진로개발역량에 대해 진로탐색 최상위 집단이 추가적으로 분류되었으며, 진로탐색 상위, 최상위 집단 비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2018학년도 수시 입학생의 경우 2008학년도에 비해 진로탐색 중위 집단이 감소하고, 하위 집단 및 상위, 최상위 집단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진로탐색 집단이 양극화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한편 수시 입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잠재집단은 10년간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위 집단의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상위 집단 비율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전이확률분석을 실시한 결과, 2008학년도 수시 입학생의 경우 진로개발역량 잠재집단과 대학생활만족도 잠재집단 간의 '두드러진 전이' 양상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방향성을 나타냈으나, 2018학년도 수시 입학생의 경우 일관된 방향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2018학년도 수시 입학생 중 진로탐색 하위집단의 경우, 2008학년도 진로탐색 하위집단과 달리 누적현상을 극복하고 대학생활만족도 상위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적 시사점 및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I. 서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당, 정, 청 고위 인사에게 직접 지시하면서(유미혜, 2019.09.02.),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20년 기준 전국의 대학들은 수시(학생부교과) 42.4%, 수시(학생부종합) 25.4%, 정시 23.8%의 비율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대학교육협의회, 2020). 각 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바탕으로 선발하는 정시와 달리 단과대학 또는 학과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수시 선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수시 전형 중 입학사정관제는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를 중심으로 교과 및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평가·선발하는 제도이다. 입

1) 서울강덕초등학교 교사,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행정 석사
 2)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행정 석사과정 재학
 3) 서울버들초등학교 교사,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행정 석사과정 재학

학사정관제는 2007년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확대되어 2014년 그 명칭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송지은 외, 2017).

입학사정관제가 수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만큼 고등학교 현장에서도 변화가 생겨났다. 대입전형의 변화는 고등학교 내 교육과정 및 교과 활동과 진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활동 등의 비교과 활동에 고루 영향을 미쳤다(김보경 외, 2015).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됨에 따라 이전까지 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비교과 활동이 학생의 소질과 적성, 흥미를 찾아 주는 진로교육의 내실화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2015년 진로교육법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중·고교 내 진로교육이 확산되고 심화되는 양적·질적 측면의 변화 또한 이루어졌다. 이때 진로교육법에 의거한 진로교육은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여러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등학교 시기에 형성된 진로역량은 대학 학과 및 전공 선택, 대학 생활 적응 및 만족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신희경, 이종승, 2007; 김규효, 이은경, 2019). 따라서 고등학교 재학 시절 자신의 진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에 입학한 입학사정관제 전형 학생들의 경우 진로탐색 및 대학생활 적응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 추측된다(최유진, 이재영, 2017; 임진택 외, 2014; 오성배, 2017; 류영철, 2018; 박천환 외, 2012; 박승민 외, 2014). 이에 김보나와 김이경(2015)은 입학사정관제 전형 입학생과 타 전형 입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정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정책의 효과를 탐색하였으며, 더 나아가 전경애(2012)의 경우 학교만족도 및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입학사정관제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 보았다. 이외에도 김병진과 김시라(2013), 오성배(2015), 김준엽 외(2013) 등의 연구 또한 입학사정관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대학생활 관련 변인이 중요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통해 입학사정관제 정책이 고등학교 현장에 일으킨 변화에 대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김보경 외, 2015; 허정은, 원효연, 2015), 입학사정관제 전형 및 수시 전형 입학생의 고등학교 재학 시기 역량을 역추적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및 확대가 10년 차를 넘어감에 따라 정책 효과에 대한 종단적인 분석의 필요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전후로 수시 전형 입학생들의 고등학교 시기 진로개발역량 잠재집단과 대학생활만족도 잠재집단을 비교하고, 더 나아가 잠재집단 간의 전이관계를 비교함으로써 입학사정관제 정책의 효과를 종단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8학년도와 2018학년도 수시 전형 입학생들의 고등학교 시기 진로개발역량 잠재집단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2008학년도와 2018학년도 수시 전형 입학생들의 대학생활만족도 잠재집단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2008학년도와 2018학년도 수시 전형 입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 잠재집단과 대학생활만족도 잠재집단 간의 전이관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입학사정관제

교육부는 입학사정관제를 대학이 대입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육성·채용·활용함으로써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보다 자유로운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라고 정의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2004년 2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입전형제도 개선 및 진로지도 강화를 통한 학교 교육 정상화’를 10대 과제로 삼았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는 「2008 대입 제도 개선안」을 통해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해당 개선안에서는 입학사정관제도의 목적을 대입체제의 전문화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생부를 제대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서술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이후 정부는 2007년 10개 대학(국립대 2개교, 사립대 8개교)을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부터 입학사정관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또한 시간이 흘러 2015년에는 대학전형 간소화 정책에 따라 입학사정관제의 공식적 명칭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변경됨으로써 제도의 초점이 입학사정관이라는 ‘평가 전문 인력’을 운용하는 방식에서 학교생활기록부라는 ‘전형자료’로 변화하였다(차정민, 2016).

〈표 1〉 수시 모집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전형) 모집인원 추이

(단위 : 명, %)

학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원	1,422	15,579	35,421	42,163	44,686	46,920	58,879	67,231	72,767	83,231	84,764	85,168
수시 내 비율	0.7	6.9	15.1	17.7	18.3	18.7	24.4	27.9	29.5	32.1	31.9	31.6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도별 수시모집요강 주요사항 보도자료 재구성.

위 <표 1>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입학사정관제 모집 인원 및 수시 내 비율이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이에 입학사정관제를 주제로 한 선행 연구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입학사정관제 연구의 경향성을 분석한 김재웅 등(2018)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 연구의 약 44.4% 가량은 외국의 사례나 발전 방안을 조사하는 형태의 정책 연구였다. 반면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의 적응에 관한 연구 및 사교육 및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약 21.6%에서 22.9% 정도로 다소 적게 행해졌으며, 그중에서도 대부분의 연구는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한 것이었다(김경화, 2016; 이필남, 2011).

입학사정관제 제도의 확대는 고등학교 교육활동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먼저 허

정은과 원효연(2015)은 입학사정관제 확대에 따른 교사들의 인식을 연구함으로써 정책 변화의 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는 교내활동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인 면을 지녔으나, 사교육비를 감소하는 데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아직까지 정량적 지표인 내신과 수능에 대한 중요도를 다른 정성적인 지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보경 등(2015)의 연구는 대입전형의 변화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입학사정관제 확대가 고등학교 학습활동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 제시하였다. 김보경 등(2015)에 의하면 대입전형의 변화는 고등학교 정규교과와 비정규교과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비교과활동의 경우, 입학사정관제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이 활성화되었으며, 진로교육 활동, 동아리활동, 독서활동 등이 내실화 되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다양한 진로 관련 교육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에 입학한 입학사정관제 전형 입학생들은 대학 입학 후에도 진로 탐색 및 대학생활 적응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유진과 이재영(2017)의 연구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이 타 전형 학생들에 비해 진로 결정의 시기가 유의하게 빨랐으며, 진로 결정에 자기효능감과 미래계획 주도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입학전형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비교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도 대체로 비슷하게 드러났다(임진택 외, 2014; 오성배, 2017; 류영철, 2018; 박소영 외, 2018; 강성배 외, 2019; 이진화 외, 2019). 또한 박천한 등(2012), 박승민 등(2014), 김대현 등(2015), 송지은 등(2017)의 연구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들은 대체로 입학 초반에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학사정관제도가 고등학교 시기 진로 활동의 활성화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추론하고,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개발역량과 대학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입학사정관제 정책 확대의 효과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진로개발역량과 대학생활만족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각 교과별 핵심역량을 도입하여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때 역량이란 학습의 과정보다는 학생들의 학습이 종료된 시점에서 얻게 되는 학습의 결과로서의 능력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지식의 활용과 적용을 강조하며, 단순한 지식이나 기능을 넘어서 정의적인 특성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특성이라 정리할 수 있다(이주연 외, 2017).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진로교육과정에서는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일과 직업세계 이해 역량, 진로탐색 역량, 진로디자인과 준비 역량 등으로 이루어진 교과특수역량으로써 진로개발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진로개발역량은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와 성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자아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역량,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역량, 변화하는 직업세계 이해 역량, 건강한 직업의식 형성 역량, 교육기회 탐색 역량, 직업정보 탐색 역량, 진로의사결정 역량, 진로설계와 준비 역량 등의 8가지로 세분화될

수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즉 광의적 의미의 진로개발역량은 한 개인이 전 생애 동안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와 성향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개인 사회영역, 진로 관리영역, 학업 영역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협의적 의미의 진로개발역량은 진로 인식 및 탐색, 진로선택, 진로 설계 및 준비 등으로 이루어진 진로관리영역으로 한정하여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이 밖에 조영아와 정철영(2013)은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개인의 진로 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역량으로써 삶의 지향을 의식한 진로선택과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도록 준비해 나가는 단계에서 요구되는 성향, 지식, 가치, 태도, 기술로 정의한 바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을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생애에 걸쳐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분야를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선택하여 설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역량의 총체로 정의하였다(선곡유화 외,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개발역량을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개발해 나가는 역량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대학생활만족은 대학생활과 만족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오윤자 외(2018)는 대학생활을 학문적 지식을 비롯한 전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학업수행, 적응, 대인관계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때 대학생활 만족은 학생들이 현재 속해 있는 대학환경에서의 학업적, 생활적, 행정적, 개인적 활동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 인지적 평가의 총족 정도를 말한다(김준곤 외, 1991). 이 밖에 김옥선 등(2005)은 대학생활만족도를 자신의 기대와 실제 성취 정도를 비교하여 자신의 존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대학생활 만족은 중장기적으로 대학 졸업 이후의 사회생활과 삶에 대한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신소영 외, 2018) 보다 체계적인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러 선행연구들은 대학생활 만족 및 적응 정도의 차이를 야기하는 원인에 대하여 다양한 변인을 통해 탐색을 실시하였다. 그중에서도 일부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진로 관련 요소와 대학생활 적응은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주관적인 환경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진로결정요소에 따른 대학생활의 만족도 차이를 조사한 오윤자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결정요소 중 '인생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장래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성공적인 진로 및 취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진로결정시기, 대학생활에서 진로·취업 준비시기, 진로결정과 관련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 진로선택을 위하여 본교에서 도움받고 싶은 것'에 따라 대학생활의 만족도 차이가 드러났다. 이외에도 강연우(2004)에 따르면 진로결정수준 점수, 진로준비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점수가 높았다. 또한 박안숙 등(2016)에 따르면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 및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고등학교 시기에서의 진로 관련 요소와 대학생활만족도를 연계하여 그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신희경과 이종승(2007)의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은 실제 대학 진학 시 학과 선택에 미치는 내적 동기의 영향력 요인을 매개로 할 때, 대학 및 학과

에 대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규효와 이은경(2019)의 연구에서도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교육경험이 진로성숙도를 높이고 대학교 입학 후 대학생활적응을 돕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2015년 진로교육법의 제정 및 시행은 중·고교 내 진로교육의 변화를 가져왔다. 진로교육법의 제정·공포로 공교육에서 진로교육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특히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맞물려 학교교육에서 진로교육의 비중 역시 높아졌다(정철영 외, 2015). 보다 구체적으로는 진로교육의 확산을 위해 정부는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선택교과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연계하고, 타 교과와 연계한 진로교육,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초·중·고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정윤경, 2017). 따라서 이러한 진로교육 기회의 확대 및 내실화는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하며 대학생활적응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업정보인지도, 전공정보인지도, 자신에 대한 인지 수준 변수를 활용하여 진로개발역량의 발달 정도를 측정하고,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 학과 및 전공 선택에 관한 만족, 학교의 행정 제반 및 생활에서의 만족 변수를 통해 대학생활만족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진로교육 확대를 포함한 입학사정관계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수시 전형 입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 잠재집단과 대학생활만족도 잠재집단 간의 전이관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에서 제공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은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중장기적 국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구축된 종단자료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차에 걸쳐 조사된 KEEP I 과 2016년부터 새롭게 시작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KEEP II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본 연구는 그중에서도 입학사정관계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수시 전형 입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 잠재집단과 대학생활만족도 잠재집단 간의 전이관계를 비교·분석하고자 KEEP I의 중3 코호트 4~5차년도(2007~2008년) 자료와 KEEP II의 고2 코호트 1차(2016년), 3차년도(2019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입학사정관계 정책 변화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라 사료되는 일반계고 졸업 2008학년도 수시 전형 입학생 339명(KEEP I)과 2018학년도 수시 전형 입학생 2,314명(KEEP II)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연구의 정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은 거주 지역, 대학 유형, 고등학교 성적 등의 변인을 포함한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2. 측정변수

1) 고등학교 시기 진로개발역량 잠재집단

수시 전형 입학생들의 고등학교 시기 진로개발역량 잠재집단을 유형화하기 위해 KEEP I 4차년도와 KEEP II 1차년도에 조사된 직업정보인지도, 전공정보인지도, 자신에 대한 인지수준 변수를 활용하였다. 이때 직업정보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미래 직업에 대한 결정 여부를 묻는 문항과 희망 직업의 업무 내용, 전망 및 비전, 임금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묻는 세 문항을 평균내어 사용하였다. 또한 전공정보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진학 희망 전공 결정 여부를 묻는 문항과 희망 전공의 졸업 후 진출 가능 직업, 요구되는 내신 및 수능 점수 수준, 요구되는 소질과 능력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묻는 세 문항을 평균내어 사용하였다. 한편 자신에 대한 인지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흥미, 특기, 가치관 등에 대한 확신 정도를 묻는 5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다른 변수 간의 비교를 위해 응답값을 10점 만점으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변수 처리 내용 및 신뢰도(Cronbach's alpha) 값은 <표 2>와 같다.

2) 대학생활만족도 잠재집단

수시 전형 입학생들의 대학생활만족도 잠재집단을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KEEP I 5차년도와 KEEP II 3차년도에 조사된 대학생활, 대학만족도, 전공만족도 변수를 활용하였다. 이때 대학생활 변수는 두 시점에 공통으로 조사된 10개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그 중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나는 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다.' '우리 학과는 학생들 간의 관계가 좋다.' 가 있다. 또한 대학만족도와 전공만족도 변수의 경우 각 1문항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2008학년도 수시 전형 입학생들은 2008년 6월을 기준으로, 2018학년도 수시 전형 입학생들은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대학 및 전공만족도를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변수 처리 내용 및 신뢰도 값은 <표 2>와 같다.

<표 2> 변수의 구성 및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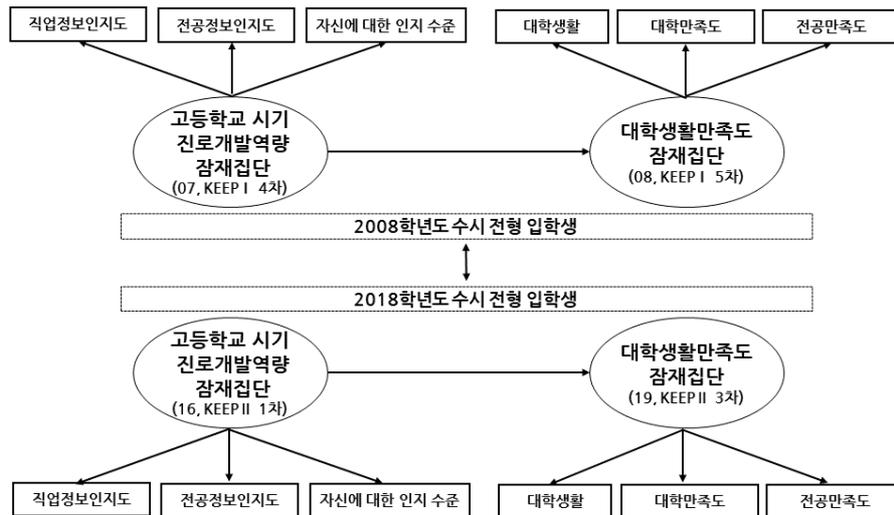
변수		변수처리	신뢰도 (Cronbach's α)
진로개발 역량	직업정보인지도	결정안함=0 Likert 5점 척도(10점 만점 표준화, 2=전혀 모른다 ~10=매우 잘안다)	.600~.611
	전공정보인지도		
	자신에 대한 인지 수준		
대학생활 만족도	대학생활	Likert 5점 척도(10점 만점 표준화, 2=전혀 그렇지 않다~10=매우 그렇다)	.748~.802
	대학만족도		
	전공만족도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입학사정관제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수시 전형 입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 잠재집단과 대학생활만족도 잠재집단 간의 전이관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교육적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그림 1]과 같이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통해 각 측정시기별로 진로개발역량과 대학생활만족도 하위 변수에 기반한 잠재집단을 탐색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잠재집단 결정에 있어 통계적인 기준을 이용하므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편의(bias)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김동일 외, 2013). 한편 각 측정시기별로 적절한 잠재집단의 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값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다. AIC와 BIC는 일반적으로 그 값이 작을수록 높은 적합도를 의미한다(노연경, 정송, 홍세희, 2014). 그러나 잠재집단 수가 증가함에 따라 두 가지 지수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요인분석에서 스크리도표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구간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방식과 같이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할 수 있다(노연경, 홍세희, 2012).

둘째, 고등학교 시기 진로개발역량 잠재집단과 대학생활만족도 잠재집단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전후로 그 양상을 비교하고자 전이확률(Transition Probabilities)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전이확률이란 t-1시점의 추정된 각 잠재집단이 t시점에 특정 잠재계층으로 전이될 확률을 의미한다(Collins&Lanza, 2010). 잠재프로파일분석과 전이확률 분석에는 STATA 15.0을 사용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IV.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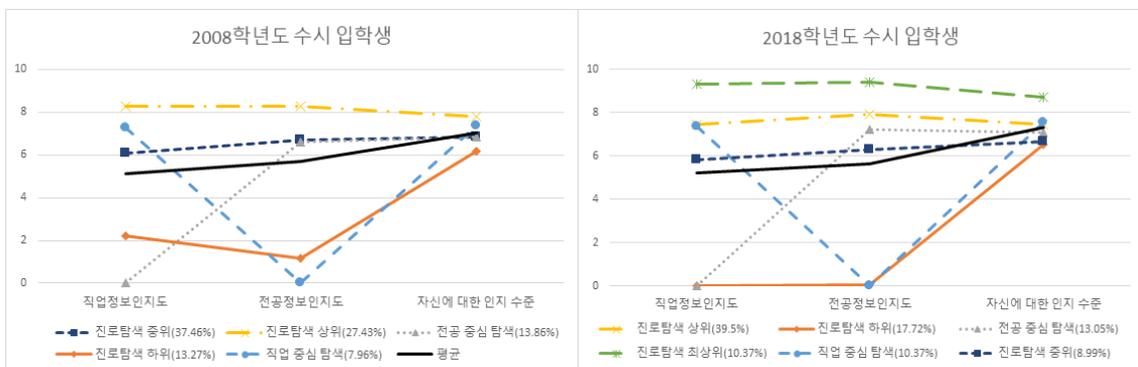
1. 고등학교 시기 진로개발역량 잠재집단 비교

잠재프로파일분석에 앞서 고등학교 시기 진로개발역량의 최적 잠재집단 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표 3>과 같이 집단의 수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AIC, BIC 값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두 측정시점 모두 집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AIC 값과 BIC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2008학년도 수시 입학생의 경우 잠재집단의 수가 4개에서 5개로 변화할 때, 2018학년도 수시 입학생의 경우 잠재집단의 수가 5개에서 6개로 변화할 때, 모형적합도 값이 가장 급격하게 하락하였으며 이후 기울기가 완만하게 유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언경과 홍세희(2012)를 바탕으로 모형적합도의 기울기와 도출된 잠재집단의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08학년도 수시 입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은 5집단, 2018학년도 수시 입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은 6집단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 측정시점별 진로개발역량 잠재프로파일 모형적합도

잠재집단 수	2008학년도 수시 입학생		2018학년도 수시 입학생	
	AIC	BIC	AIC	BIC
3	4067.31	4120.87	28626.84	28707.29
4	3971.31	4040.59	27731.70	27835.15
5	3548.75	3632.92	27483.66	27610.09
6	3482.31	3581.79	24777.31	24926.72
7	3423.45	3538.23	24691.67	24864.07
N	339		2,314	

각 측정시점별 최적 잠재집단 수를 바탕으로 분류된 잠재집단의 형태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측정시점별 진로개발역량 잠재집단 비교

먼저 2008학년도 수시 입학생과 2018학년도 수시 입학생의 고등학교 시기 진로개발역량은 공통적으로 진로탐색 하위 집단, 전공중심 탐색 집단, 직업중심 탐색 집단, 진로탐색 중위 집단, 진로탐색 상위 집단이 분류되었으며, 2018학년도 수시 입학생의 경우 진로탐색 최상위 집단이 추가적으로 분류되었다. 이때 진로탐색 하위 집단은 직업정보인지도와 전공정보인지도가 평균에 비해 2점 이상 낮다는 특징을 보이며, 전공중심 탐색 집단은 직업정보인지도가 평균에 비해 4점 이상 낮지만, 전공정보인지도가 평균보다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직업중심 탐색 집단은 평균보다 4점 이상 낮은 전공정보인지를 지니고 있지만, 직업정보인지도가 평균보다 높다는 특징을 지니며, 진로탐색 중위 집단은 전공 및 직업 정보 인지도가 모두 평균과 1.5점 이내의 차이를 보인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진로탐색 상위 집단은 평균에 비해 2점 이상 높은 직업·전공정보인지를 보이며, 진로탐색 최상위 집단의 경우 평균에 비해 3점~3.5점 가량 높은 직업·정보인지를 보인다. 자선에 대한 인지 수준 변수의 경우 잠재집단에 따라 유의하지 않은 평균 차이를 보였으므로, 집단의 이름을 명명하는데 고려되지 않았다.

〈표 4〉 측정시점 및 잠재집단별 진로개발역량의 평균(표준편차)

잠재집단	2008학년도 수시 입학생				2018학년도 수시 입학생			
	비율 (%)	직업정보 인지도	전공정보 인지도	자선에 대한 인지수준	비율 (%)	직업정보 인지도	전공정보 인지도	자선에 대한 인지수준
1 진로탐색 하위	13.27	2.23 (.12)	1.19 (.11)	6.19 (.15)	17.72	.01 (.04)	.02 (.04)	6.53 (.06)
2 전공중심 탐색	13.86	.00 (.12)	6.61 (.11)	6.85 (.15)	13.05	.01 (.04)	7.21 (.05)	7.09 (.07)
3 직업중심 탐색	7.96	7.26 (.16)	.00 (.15)	7.37 (.19)	10.37	7.36 (.05)	.00 (.05)	7.54 (.07)
4 진로탐색 중위	37.46	6.08 (.09)	6.71 (.08)	6.83 (.09)	8.99	5.83 (.07)	6.30 (.10)	6.67 (.09)
5 진로탐색 상위	27.43	8.29 (.11)	8.26 (.09)	7.81 (.11)	39.50	7.46 (.04)	7.93 (.04)	7.46 (.04)
6 진로탐색 최상위					10.37	9.32 (.08)	9.42 (.06)	8.70 (.08)
전체	100.00	5.10	5.68	7.05	100.00	5.20	5.62	7.31

다음으로 2008학년도 수시 입학생과 2018학년도 수시 입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잠재집단을 비교한 결과, 이들은 잠재집단별 비율 순위, 상위 및 중위, 하위 집단 학생의 비율에서 차이를 보였다. 먼저 2008학년도 수시 입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은 중위-상위-전공중심-하위-직업중심 집단 순으로 큰 비율을 차지한 반면, 2018학년도 수시 입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은 상위-하위-전공중심-직업중심-최상위-중위 집단 순으로 큰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측정 대상이 10년의 차이를 두고 바뀔에 따라, 상위 및 최상위 집단의 비율은 27.43%에서 49.87%로 증가하였으며,

중위 집단의 비율은 37.46%에서 8.99%로 감소하였다. 또한 하위 집단의 비율은 13.27%에서 17.72%로 약 4.45%p가량 증가하였다. 즉, 중위 집단의 비율이 감소하고 하위 및 상위·최상위 집단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수시 입학생의 고등학교 시기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양극화가 심화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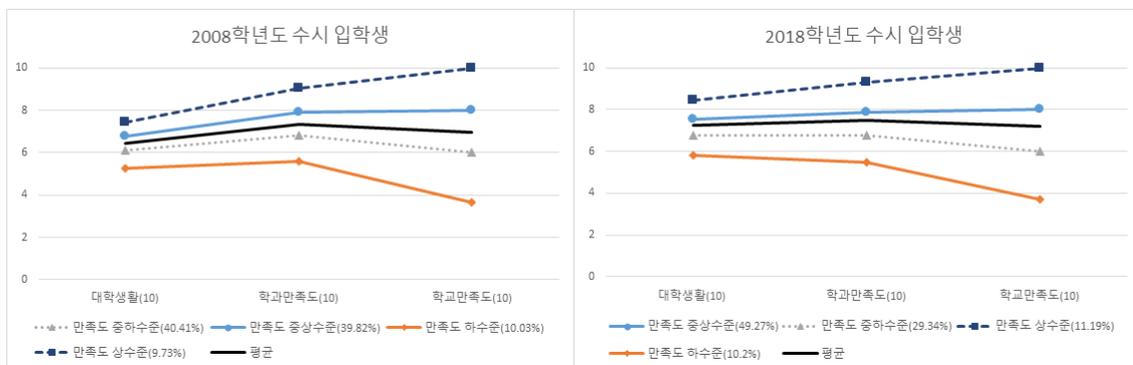
2. 대학생활만족도 잠재집단 비교

수시 전형 입학생들의 대학생활만족도에 대한 최적 잠재집단 수를 추정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그 결과, 2008학년도 수시 입학생과 2018학년도 수시 입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잠재프로파일 모두 집단의 수가 4개일 때 가장 낮은 AIC, BIC 값을 나타냈다. 또한 두 측정시점 모두 잠재집단의 수가 4개에서 5개로 증가했을 때 AIC와 BIC 값이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AIC와 BIC 값은 작을수록 높은 모형적합도를 의미하므로(노언경 외, 2014), 본 연구에서는 2008학년도 수시 입학생과 2018학년도 수시 입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모두 4집단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5> 측정시점별 대학생활만족도 잠재프로파일 모형적합도

잠재집단 수	2008학년도 수시 입학생		2018학년도 수시 입학생	
	AIC	BIC	AIC	BIC
2	3467.40	3505.66	23451.81	23509.27
3	3390.11	3443.67	22987.09	23067.54
4	2908.70	2977.57	19304.64	19408.08
5	2916.70	3000.87	19312.64	19439.06
N	339		2,314	

각 측정시점별 최적 잠재집단 수를 바탕으로 분류된 잠재집단의 형태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측정시점별 대학생활만족도 잠재집단 비교

먼저 2008학년도 수시 입학생과 2018학년도 수시 입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는 공통적으로 만족도 하수준 집단, 만족도 중하수준 집단, 만족도 중상수준 집단, 만족도 상수준 집단이 분류되었다. 이때 만족도 하수준 집단은 대학생활 및 학과만족도가 평균보다 1.19~1.97정도 낮으며, 특히 학교만족도가 평균에 비해 3점 이상 낮다는 특징을 보인다. 만족도 중하수준 집단은 .31~1.20 이내로 평균과 비슷하지만 낮은 대학생활, 학과·학교만족도 값을 보이며, 만족도 중상수준 집단은 .30~1.05 이내로 평균과 비슷하지만 높은 대학생활, 학과·학교만족도 값을 보인다. 한편 만족도 상집단은 평균보다 대학생활 및 학과만족도가 1점 이상 높으며, 특히 학교만족도가 만점에 가깝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표 6〉 측정시점 및 잠재집단별 대학생활만족도의 평균(표준편차)

잠재집단	2008학년도 수시 입학생				2018학년도 수시 입학생			
	비율 (%)	대학생활	학과만족도	학교만족도	비율 (%)	대학생활	학과만족도	학교만족도
1 만족도 하	10.03	5.28 (.16)	5.59 (.23)	3.65 (.04)	10.20	5.84 (.06)	5.50 (.09)	3.69 (.02)
2 만족도 중하	40.41	6.13 (.08)	6.80 (.12)	6.00 (.02)	29.34	6.76 (.04)	6.76 (.05)	6.00 (.01)
3 만족도 중상	39.82	6.79 (.08)	7.91 (.12)	8.00 (.02)	49.27	7.54 (.03)	7.89 (.04)	8.00 (.01)
4 만족도 상	9.73	7.46 (.16)	9.03 (.24)	10.00 (.04)	11.19	8.45 (.06)	9.29 (.08)	10.00 (.01)
전체	100.00	6.44	7.34	6.95	100.00	7.24	7.47	7.20

다음으로 2008학년도 수시 입학생과 2018학년도 수시 입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잠재집단을 비교한 결과, 이들은 잠재집단별 비율 순위 및 하위(하, 중하) 집단과 상위(중상, 상)집단의 비율에서 차이를 보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8학년도 수시 입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는 중하-중상-하-상 집단 순으로 큰 비율을 차지한 반면, 2018학년도 수시 입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는 중상-중하-상-하 집단 순으로 큰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기존의 4가지 잠재집단을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였을 때, 2008학년도 수시 입학생의 경우 하위 집단 50.44%, 상위 집단 49.55%로 하위 집단 비율이 상위 집단보다 .89%p 더 높았으나, 2018학년도 수시 입학생의 경우 하위 집단 39.54%, 상위 집단 60.46%로, 상위 집단 비율이 하위 집단보다 20.92%p 더 높았다.

3. 진로개발역량과 대학생활만족도 잠재집단의 시점별 전이확률 비교

〈표 7〉은 고등학교 시기 진로개발역량의 각 잠재집단에 속했던 학생들이 어떤 유형의 대학생활만족도 잠재집단으로 나뉘는지는 그 확률을 10년간의 간격을 두고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때 진로개발역량 각 집단 내에서 대학생활만족도 각 집단으로의 전이확률이 대학생활만

족도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의 비율(계)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이를 ‘두드러진 전이’로 간주하여 굵은 글씨와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먼저 2008학년도 수시 입학생의 경우, 진로탐색 하위 집단에서는 만족도 중하 집단으로의 전이(55.56%)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만족도 상 집단으로의 전이(2.22%)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공중심 탐색 집단의 경우 만족도 중상 집단으로의 전이(55.32%)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직업중심 탐색 집단의 경우 만족도 중하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전체 프로파일 비율보다 높은 전이확률을 나타냈다. 한편 진로탐색 중위 집단은 만족도 하 집단(11.02%)과 만족도 상 집단(10.24%)으로의 전이가 두드러졌으며, 진로탐색 상위 집단은 만족도 중상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두드러진 전이확률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2018학년도 수시 입학생의 경우, 진로탐색 하위 집단(13.41%, 30.24%)과 전공중심 탐색 집단(12.91%, 31.13%), 직업중심 탐색 집단(13.33%, 37.08%)에서는 공통적으로 만족도 하 집단 및 만족도 중하 집단으로의 전이가 두드러졌으며, 만족도 상 집단으로의 전이가 가장 낮은 확률을 나타냈다. 또한 진로탐색 중위 집단의 경우 만족도 중하 집단(31.73%) 및 만족도 중상 집단(52.88%)으로의 전이확률이 전체 프로파일 비율보다 높았으며, 진로탐색 상위 집단(51.20%, 12.25%)과 최상위 집단(50.83%, 21.67%)의 경우 만족도 중상 집단과 만족도 상 집단으로의 전이가 두드러졌다.

이를 종합해보았을 때, 2008학년도 수시 입학생들의 경우 진로개발역량 잠재집단과 대학생활만족도 잠재집단 간의 ‘두드러진 전이’ 양상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방향성을 나타냈다. 즉, 진로탐색 하위 집단 및 전공·직업중심 탐색 집단의 전이 양상이 만족도 중하, 중상 집단과 같은 중위 집단에서 두드러진 반면, 진로탐색 중위 집단 및 상위 집단의 경우 만족도 하 집단과 상 집단으로의 전이에서 두드러진 전이확률을 보이는 등 양극화된 양상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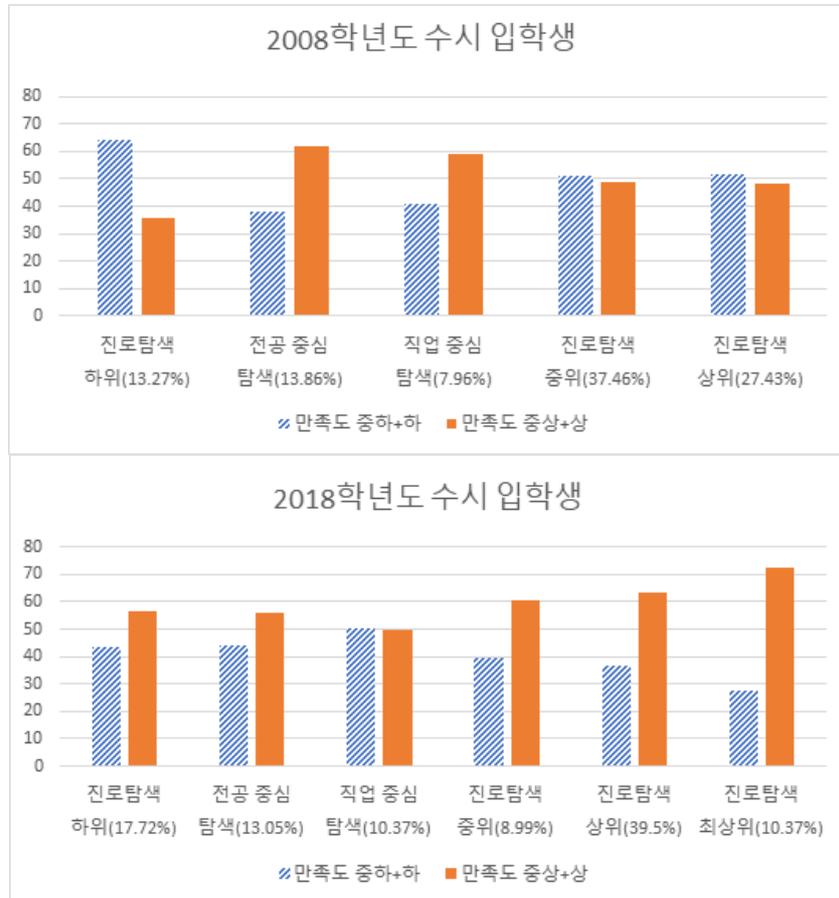
반면, 2018학년도 수시 입학생들의 경우 진로개발역량 잠재집단과 대학생활만족도 잠재집단 간의 ‘두드러진 전이’ 양상에 대해 일관된 방향성을 나타냈다. 진로탐색 수준이 낮거나 특정 정보만을 인지하는 학생들은 만족도 하 집단 및 만족도 중하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두드러졌으나, 진로탐색 수준이 높은 집단의 학생들은 만족도 중상 집단 및 상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두드러졌다. 즉, 2008학년도에서 2018학년도로 시점이 바뀔에 따라, 고등학교 시기 진로개발역량 수준과 대학생활만족도 수준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더욱 강해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7〉 진로개발역량과 대학생활만족도 잠재집단의 시점별 종단적 전이확률

			대학생활만족도				계
			1	2	3	4	
			만족도 하	만족도 중하	만족도 중상	만족도 상	
진로 개발 역량	2008 수시	1 진로탐색 하위	8.89 (11.76)	55.56 (18.25)	33.33 (11.11)	2.22 (3.03)	100.00 (13.27)
		2 전공중심 탐색	4.26 (5.88)	34.04 (11.68)	55.32 (19.26)	6.38 (9.09)	100.00 (13.86)
		3 직업중심 탐색	14.81 (11.76)	25.93 (5.11)	48.15 (9.63)	11.11 (9.09)	100.00 (7.96)
		4 진로탐색 중위	11.02 (41.18)	40.16 (37.23)	38.58 (36.30)	10.24 (39.39)	100.00 (37.46)
		5 진로탐색 상위	10.75 (29.41)	40.86 (27.74)	34.41 (23.70)	13.98 (39.39)	100.00 (27.43)
		계	10.03 (100.00)	40.41 (100.00)	39.82 (100.00)	9.73 (100.00)	
	2018 수시	1 진로탐색 하위	13.41 (23.31)	30.24 (18.26)	47.07 (16.93)	9.27 (14.67)	100.00 (17.72)
		4 전공중심 탐색	12.91 (16.53)	31.13 (13.84)	47.35 (12.54)	8.61 (10.04)	100.00 (13.05)
		3 직업중심 탐색	13.33 (13.56)	37.08 (13.11)	43.33 (9.12)	6.25 (5.79)	100.00 (10.37)
		2 진로탐색 중위	7.69 (6.78)	31.73 (9.72)	52.88 (9.65)	7.69 (6.18)	100.00 (8.99)
		5 진로탐색 상위	8.97 (34.75)	27.57 (37.11)	51.20 (41.05)	12.25 (43.24)	100.00 (39.50)
		6 진로탐색 최상위	5.00 (5.08)	22.50 (7.95)	50.83 (10.70)	21.67 (20.08)	100.00 (10.37)
		계	10.20 (100.00)	29.34 (100.00)	49.27 (100.00)	11.19 (100.00)	

*주: ()은 대학생활만족도 중 %를 의미함. 진로개발역량 각 집단 내에서 대학생활만족도 각 집단으로의 전이확률을 살펴보면, 대학생활만족도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의 비율(계)보다 더 높은 경우에 두드러진 전이로 간주하여 굵은 글씨와 음영으로 표시함.

더 나아가 [그림 4]와 같이 대학생활만족도 잠재집단을 다시 하위집단(하, 중하)과 상위집단(중상, 상)으로 나누어 진로개발역량과의 전이확률을 시점별로 살펴본 결과, 2008학년도 수시 입학생 중 진로탐색 하위집단은 대학생활만족도 하위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컸던 것에 반해, 2018학년도 수시 입학생 중 진로탐색 하위집단의 경우 대학생활만족도 상위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탐색 상위 집단의 전이확률 변화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08학년도 진로탐색 상위 집단의 경우 대학생활만족도 하위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상위집단으로 전이될 확률보다 약 3.04%p 높았으나, 2018학년도 수시 입학생의 경우에는 진로탐색 상위·최상위 집단에 속했던 학생들이 대학 진학 후 만족도가 상위 수준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진로개발역량과 대학생활만족도 잠재집단의 전이확률 시점별 비교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전후로 수시 전형 입학생들의 고등학교 시기 진로개발역량 잠재집단과 대학생활만족도 잠재집단을 비교하고, 더 나아가 잠재집단 간의 전이관계를 비교 함으로써 일반계고 졸업 수시 전형 입학생들에 대한 입학사정관제 정책의 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8학년도 수시 입학생의 경우 2008학년도 수시 입학생과 달리 고등학교 시기 진로 개발역량에 대해 진로탐색 최상위 집단이 추가적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2008학년도 수시 입학 생에 비해 2018학년도 수시 입학생의 진로탐색 상위, 최상위 집단 비율은 약 22.44%p 증가하 였다. 진로개발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뚜렷한 진로 목표 및 목적 설정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이 수반되어야 한다(조영아 외, 2013).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후 고등학교 내 에서 대학입학사정관제도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과정에서 비교과 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학교 교 육과정의 변화가 생겨났다(이주연, 2012). 더불어 2015년 개정된 진로교육법은 초·중등학교에서

진로전담교사 배치, 진로심리검사 제공, 진로상담,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진로집중학년·학기 운영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2018년도 수시 입학생은 2008년 수시 입학생에 비하여 고등학교 시절 다양한 진로 관련 활동의 기회를 가지고 진로개발역량을 향상할 수 있었다. 이는 2018년도 수시 입학생의 진로탐색 최상위 집단 설정, 진로탐색 상위, 최상위 집단 비율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추론된다.

둘째, 2018학년도 수시 입학생의 경우 2008학년도 수시 입학생과 비교하여, 진로탐색 중위 집단이 28.47%p 가량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하위 집단의 비율은 3.5%p 가량 상승 하였고, 상위·최상위 집단의 비율이 22.44%p 증가하면서 진로탐색 집단이 양극화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학부모가 입학사정관 전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한 안선희 등(2009)의 연구 결과와 사교육비 중위집단이 위축되고 있다는 조영재(2013)의 연구 결과와도 관련이 깊어 보인다. 진로탐색 중위 집단의 급격한 축소의 이유가 사교육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겠으나, 1에 가까울수록 심각한 양극화를 나타내는 Wolfson 지수에서 0.6이 나올 정도로 사교육비 중위집단이 심각하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조영재, 2013)과 중위 집단이 28.47%p나 감소한 진로개발역량 잠재집단 간에는 관련성이 존재할 것이라 추측된다. 하지만, 하위 집단이 3.5%p 증가한데에 반해 상위·최상위 집단이 22.44%p 증가 했다는 연구 결과는 진로개발역량 잠재집단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준다.

셋째, 2008학년도 수시 입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는 하위 집단의 비율이 상위 집단보다 높았으나, 2018학년도 수시 입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는 상위 집단의 비율이 하위 집단에 비해 약 20%p 가량 높았다. 즉, 10년간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시 입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하위 집단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상위 집단 비율은 증가한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수시 전형 내 입학사정관제의 비율은 2008학년도에 비해 2018학년도 때 약 30%p 가량 증가하였으며,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통해 입학한 수시 전형 학생 수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이때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은 다른 전형 입학생들에 비해 높은 대학적응 및 대학생활만족도를 보인다(박천환 외, 2012; 박승민 외, 2014; 김대현 외, 2015; 송지은 외, 2017). 따라서 이를 통해 입학사정관제 정책의 확대가 2018학년도 수시 입학생들의 대학생활만족도 상위 집단 비율 증가와 하위 집단 비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넷째, 2008학년도 수시 입학생의 경우 진로개발역량 잠재집단과 대학생활만족도 잠재집단 간의 ‘두드러진 전이’ 양상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방향성을 나타냈으나, 2018학년도 수시 입학생의 경우 일관된 방향성을 나타내었다. 즉, 2008학년도에서 2018학년도로 측정 시점 및 대상이 바뀔에 따라 고등학교 시기 진로개발역량 잠재집단과 대학생활만족도 잠재집단 간의 전이 양상이 정적 상관관계를 띠게 된 것이다. 류영철(2015)에 따르면 수시 전형이 확대됨에 따라 학생 선발 시 전공에 대한 소질과 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에 각 고등학교 내에서는 학생들의 진학 희망에 맞는 다양한 교내 비교과 활동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힘을 쏟기 시작하였다(김보경 외, 2015). 이에 따라 고등학교 재학 시기 누적된 진로 희망 및 관련 활동이 진학 희망 전공과 일치하는 경우 정시 전형보다 수시

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으며, 특히 수시 전형 내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됨에 따라 대학 또한 대학 및 전공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였다. 즉, 2008학년도와 2018학년도 분석 대상이 모두 같은 수시 입학생이라 할지라도, 입학사정관제 확대 후 학생들의 전공적합성이 높아짐에 따라(임진택 외, 2016) 진로탐색 상위 집단의 대학생활만족도 상위 집단 전이확률이 높아졌으므로, 고등학교시기 진로탐색역량과 대학생활만족도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더욱 높아진 것이라 추측된다.

다섯째, 2018학년도 수시 입학생 중 진로탐색 하위집단의 경우, 2008학년도 진로탐색 하위집단과 달리 누적현상을 극복하고 대학생활만족도 상위 집단(중상, 상)으로 전이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학년도 진로탐색 상위 집단의 경우 대학생활만족도 하위 집단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컸으나, 2018학년도의 상위·최상위 집단의 경우 만족도 상위 집단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시기 진로 탐색 수준이 낮은 집단도 대학생활만족도 상위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늘었다는 것은, 입학사정관제 확대와 함께 진로지도 및 교육의 질이 상승함에 따라 적은 양의 진로탐색으로도 높은 대학생활만족도를 도출해 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진로교육 성과평가 관련 선행연구 분석 연구(정철영 외, 2019)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진로교육 활동에 따라 성과 변인의 질적 수준이 상승한 경우는 141회(91.6%)에 달했다. 이를 통해, 국내의 진로교육이 여러 진로변인들을 상승시키는 데에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공이 하위의 집단이 누적현상을 극복하고 대학생활만족도 상위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을 높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시 전형에는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나 본 연구는 자료상의 한계로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수시 전형 내 유형별 잠재집단 양상과 전이확률을 비교함으로써 많은 변천을 겪어온 수시 전형 대입 정책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2008학년도 수시 입학 코호트와 2018학년도 수시 입학 코호트 간의 비교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각 코호트에서 분류된 잠재집단의 특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특성 및 학교, 가정 변인 등을 반영하여 각 코호트별 잠재집단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진로개발역량 및 대학생활만족도 상위 집단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됨에 따라 수시 전형 입학생들의 고등학교 시기 진로개발역량과 대학생활만족도 상위집단이 증가하는 등, 입학사정관제의 확대가 학생들에게 진로개발과 대학생활만족도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종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미 적용된 대입제도가 교육에 어떤 변화 및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교육적 시사점을 남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대입제도는 단순히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짓는 도구가 아니라,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이다. 이에 ‘대입제도 전면 재검토’를 실시한다면, 그 이전에 기존 대입정책들의 교육적 효과가 어떠한지를 여러 방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대학협의회(2018). 대학입학사정관제브로서.
- 교육인적자원부(2004).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 교육인적자원부(2004). 2008 대입제도 개선 방안.
- 김경화(2016). 대학입학전형의 사교육 영향 평가. 미래교육연구, 6(3), 21-47.
- 강성배, 김광현(2019). 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과 학습태도간의 관계: 입학전형의 차이분석. 교양교육연구, 13(6), 77-96.
- 강연우(2004).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과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학생생활 연구, 9, 71-82.
- 김규호, 이은경(2019).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교육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진로성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22(1), 97-110.
- 김동일, 이윤희, 김영근, 강민철(2013). 청소년 인터넷중독 위험군에 대한 잠재집단 프로파일 분석. 상담학연구, 14(4), 2143-2162.
- 김대현, 이수영, 최혜림(2015). 대입전형별 입학 후 대학생활 적응도 분석 연구. 경희대학교 입학전형연구, 4, 93-121.
- 김병진, 김시라(2013).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과 타 전형 신입생의 특성 비교 연구: 입학사정관 전형 종합평가의 타당성 분석. 한국교육, 40(2), 57-78.
- 김보나, 김이경(2015). 대학 입학 선발 방식에 따른 대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 차이 분석 연구. 교육문화연구, 21(3), 5-25.
- 김보경, 최지은, 유평수(2015). 대입전형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미치는 영향. 교육종합연구, 13(1), 93-119.
- 김옥선, 오운자, 최명구(2005).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9(3), 761-777.
- 김재웅, 박상완, 이예경(2018). 입학사정관제도 연구의 경향성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6(1), 1-23.
- 김준곤, 성한기, 이춘희, 박경자(1991). 대학생활 만족의 구성요인과 예언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4(1), 154-167.
- 김준엽, 박소영, 신혜숙, 민병철(2013). 대학에서의 학습 및 활동을 중심으로 본 입학사정관제 성과. 아시아교육연구, 14(1), 29-50.
- 노연경, 정송, 홍세희(2014).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아동·청소년 비행 유형 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5(4), 211-240.
- 노연경, 홍세희(2012).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 목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3(3), 51-76.
- 대학교육협의회(2020).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 류영철(2018). 입학전형, 성별에 따른 대학 재학생의 진로·학업·시민역량 및 생활적응 차이 분석.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 20(1), 53-77.
- 박소영, 김지연(2018). 대학입학전형 유형의 대학생활 적응 및 학업성취도에 대한 종단적 영향력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36(5), 323-353.

- 박승민, 변복수(2014).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의 입학 후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7(1), 29-56.
- 박안숙, 김혜경(2016). 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 및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지, 17(2), 511-519.
- 박천환, 구경호, 소애숙(2012). 입학사정관계 전형 학생과 비 입학사정관계 전형학생의 학교생활적응 및 적응 프로그램 요구 비교. 초등교육연구, 27, 27-52.
- 선곡유화, 임현정, 서우석(2020).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진로교육 경험, 부모지지 및 자기주도 학습의 구조적 관계. 한국진로교육학회, 33(2), 133-155.
- 송지은, 이광호(2017). 학생부종합전형 입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4(2), 221-250.
- 신소영, 권성연(2018). 상호작용적 학습활동과 교수와의 상호작용 및 수업의 질. 대학생활 만족 간의 관계 구조분석. 평생교육·HRD연구, 14(4), 111-133.
- 신희경, 이종승(2007). 내적동기를 매개변인으로 한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이 대학 및 학과에 대한 만족도와 학문적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학회, 45(1), 71-100.
- 안선희, 정일환, 주동범(2009). 입학사정관계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16(2), 7-33.
- 오성배(2015). 대학입학전형별 입학생의 학교생활 추이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3(1), 1-18.
- 오성배(2017). 대학생의 대입전형별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분석.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 35(2), 35-52.
- 오윤자, 이흥연, 안성식(2018). 진로결정요소에 따른 대학생활의 만족도 차이에 관한 탐색적 연구. 취업진로연구, 8(2), 117-137.
- 유미혜(2019.09.02.). 문 대통령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젊은 세대 깊은 상처. JTBC
- 이주연(2012). 대학입학사정관계 도입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 학습조직이론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0(4), 81-108.
- 이주연, 이근호, 이병천, 가은아(2017). 역량기반 학교 교육과정의 실천 사례 특징 분석: 교육과정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20(1), 1-30.
- 이진화, 김윤경(2019). 입학전형 유형별 대학생활 적응 및 성과: 재학 기간 경과에 따른 변화. 인하대학교 교육문화연구, 25(1), 317-338.
- 이필남(2011). 대학 입학사정관전형 지원 계획과 사교육 수요 관계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0(4), 125-151.
- 임진택, 박지선, 조민경, 김효희(2016).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전공적합성의 의미와 대체 용어에 관한 고찰. 입학전형연구, 5, 37-75.
- 임진택, 조민경, 김효희(2014). 입학전형별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입학전형연구, 3, 68-87.
- 전경애(2012).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6), 508-517.
- 정윤경(2017). 진로교육과정과 학교진로교육 운영. 제45차 한국진로교육학회 2017년 추계학술대회지, 53-58.
- 정철영, 이유우, 김태환, 최로미, 이승엽, 박신희, 박선영(2019). 진로교육 성과평가 관련 선행연구 실태분석. 진로교육연구, 32(4), 331-357.

- 정철영, 정진철, 이종범, 정동열, 임효신, 이서정, 임정훈(2015). 우리나라 진로교육 현황 및 발전 방향 연구. 한국진로교육학회, 28(3), 155-171.
- 조영아, 정철영(2013).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진로준비행동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5(4), 53-77.
- 조영재(2013). 사교육비 양극화 진단과 분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69-96.
- 차정민(2016). 학생부종합전형의 현황과 개선 방안. 교육정책네트워크 이슈페이퍼(CP 2016-02-5).
- 최유진, 이재영(2017). 입학 전형에 따른 환경교육과 재학생의 학교 활동 및 진로 탐색 비교 연구. 환경교육, 30(1), 121-138.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 학생 진로개발역량 지표 개발 보급. 세종; 교육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 학생 진로개발역량 지표 활용안내서: 교사용. 세종; 교육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 한국교육고용패널Ⅱ 1차(2016)년도 조사: 사용자 지침서(User Guide).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허정은, 원효현(2015). 학생부종합전형에 따른 고교 교육의 변화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27(3), 804-812.
- Collins, L. M., & Lanza, S. T. (2010).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 Abstract ❖

Latent Transition Analysis between Latent Profiles of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fore and after the Expansion of the 'Admissions Officer System'

Yoon Ye-rin, Yoo Wonseon, Jang Yu-j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 of the admissions officer system by comparing the latent profiles of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in high school and the latent profiles for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and the transfer relationship between latent profiles before and after the expansion of the admissions officer system. Latent Profile Analysis(LPA) and a Transfer Probability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data of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which surveyed students enrolled at regular high school graduation with a 10-year gap. Our first result of the Latent Profile Analysis, was about students' career development capabilities. Compared to 2008, 2018 students' top-ranking profile in career search was additionally classified for career development capabilities in high school. At the same time, the ratio of the upper and top-ranking profiles in career search has increased. In the case of students admitted in the 2018 school year, the ratio of middle-ranking career search profile has decreased compared to 2008, and the ratio of the lower-ranking profile, the upper-ranking profile, and the top-ranking profile has increased, which led to polarization of the career search profiles. Our next comparison was about college life satisfaction. The percentage of low-ranking profiles decreased and the percentage of high-ranking profiles increased as the 10 years has time passed. Analysis about the probability of transfer in 2008, there was an inconsistent direction for the 'marked transfer' pattern between the potential profile for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and the potential profile for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Unlike the low-ranking profile in 2008, Low-ranking profile of 2018 however, there was a high probability of overcoming the cumulative phenomenon and transferring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to the upper profile. And at last, based on these findings, educational implications and follow-up studies were suggested.

Key words: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college life satisfaction, admissions officer system, latent transition analysis